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투자전략 | 2026.06.12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Weekly



Analyst 신일 | 투자전략 02-3779-3184, e.shin@sangsangjinib.com

Analyst 김경태 | 글로벌 전략/디지털자산 02-3779-3427, kt.kim@sangsangjinib.com

Analyst 최예찬 | 경제/원자재/외환 02-3779-3519, yc.choi@sangsangjinib.com

RA 강혜성 02-3779-3475, hs.kang@sangsangjinib.com

CONTENTS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Summary	3
1. 경제	7
2. 주식	8
3. 채권	18
4. 부동산	19

Summary

주간 자산시장 동향 & 체크포인트

유가보다 금리, 공포보다 유동성

6월 2주차 금융시장
투자자별 상이한 체감온도
증시 대비 채권시장 안정화

6월 2주차 금융시장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라는 상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의해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보다 커짐에 주목했다. 또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모멘텀은 유효했으나, 알파벳의 유상 증자에 이어 메타, 마이크로 등 유증이라는 이벤트가 지속될 수 있다는 CAPEX 규모 확대 불안감이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즉, 증시의 변동성 지수인 VIX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채권시장 변동성 지수인 MOVE Index는 하락하는 등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도 상호 작용 중인 변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렸다. 유가증권과 별개로 원화 시장,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은 냉기와 열기가 각각 확산됐다. 이는 곧 변동성에 직결되는 불확실성을 바라보는 각 자산별 투자자의 위치가 이를 결정하는 6월 2주차였고, 투자자별 체감 온도가 극명한 주간이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고조에도
미국 등 선진 IG 크레딧물 선호

이번 주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채권시장이다. 미국 회사채(+0.64%), 미국 IG 크레딧(+0.64%), 미 국채(+0.58%) 모두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크레딧 채권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경 침체 우려는 낮고 금리 변동성은 안정"이라는 시장의 인식을 반영한다. 미국 기업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이익 창출 능력과 생산성을 수반하는 고용시장의 탄탄함이 크레딧 수요를 지속시킨다. 반면, 신흥 국채(+0.25%)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는 달러 강세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신흥국 성장 둔화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결과다. 한국 채권시장의 향후 1년 전후로 금리 인상 3~4회를 반영함에도 금리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상 흑자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발생할 때, 시장의 불안정성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현재 채권시장은 듀레이션 베팅보다 크레딧 선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별적 증시
그림에도 커진 일간 변동성

증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조적 흐름이 극명히 나타났다. 미국 주식은 주간 기준 +0.12% 상승하며 주요 자산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전주대비 기준으로는 나스닥 -3.8%, S&P 500 -2.5%를 기록하는 등 증시의 일간 변동성이 큰 편이다. 금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최종 합의 성사 가능성은 주말 전후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곧 선진 주식 및 AI 산업 하드웨어 중심의 비중 확대 기조 속에서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라는 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대목이다. 반면, 신흥국(-3.08%)과 중국(-2.77%)은 큰 폭의 조정을 기록하며 미국과의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1) 미국 경기의 상대적 견조함, 2) AI 투자 사이클 지속 및 3) 글로벌 자금의 미국 집중 등의 구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경기 회복 모멘텀 둔화와 정책 신뢰 부족이 지속되면서 투자심리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 글로벌 증시는 단순 위험선호 장세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선택적 위험선호 국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미국 중심의 선택적 위험자산 선호

트럼프의 연행에 따라
출추는 달러화가 관건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가파른 절하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6월 2주차 원화의 절상 전환은 가능했으나, 추세적 되돌림 절상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 원화는 주간 기준 +1.71% 절상되며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번 원화 강세는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기보다 당국의 강한 시장 안정화 조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꼬여있는 외환 시장 자체의 플로우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달러 매도 물량의 충분한 확보에 달려 있는데, 이는 경제 주체의 니즈를 자극할 때 가능하기에 지켜볼 대목이다. 달러 인덱스는 0.21% 하락했지만 여전히 월간 기준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ECB가 예상보다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유로화 약세 흐름도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다. 달러 독주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트럼프에 달려있다.

**지방선거 이후
갈길 가는 수도권 주택시장**

국내 부동산 시장은 6.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역별로 각각의 실수요에 의해 재차 달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중이다.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공급 및 규제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크게 약화되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수급을 더 신뢰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6월 3주차 금융시장
완연한 변동성 축소 국면으로 진입**

**단기적
주식시장 비중 확대
채권시장 단기 선진 국채 및 IG 선호
원자재 시장 관망
외환시장 원화 절상 기대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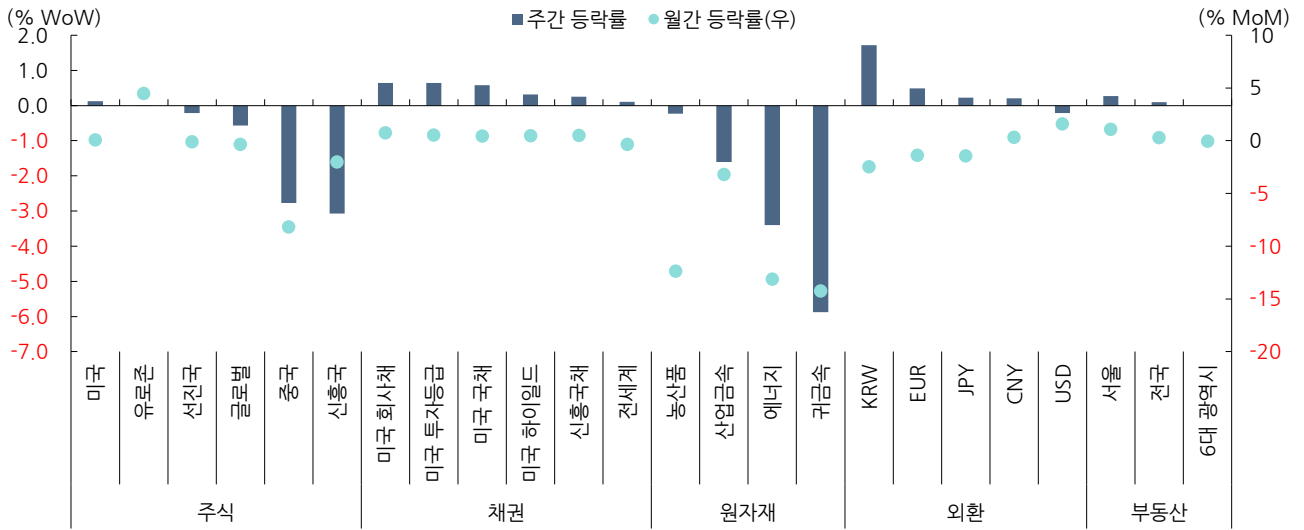
6월 3주차 글로벌 금융시장은 현재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최종 타결 여부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을 전망한다. 일회일비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나, 이번 의사결정에서 이란 측의 반응도 협상에 진전함을 시사하고 있기에 투심의 회복 그리고 중동 리스크에서의 엑시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시장 인식이 모아질 수 있겠다.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급격한 "Risk ON" 보다는 완연한 "변동성 축소" 국면으로의 전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비중확대는 유효하다. 미국 중심의 선진국에서도 AI 관련 CORE를 탄탄히 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 채권시장에서는 여전히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고, 케빈 워시의 FOMC 데뷔전에 따른 경계심도 존재하기에 캐리 매력과 스프레드 축소 기대감이 작용하는 선진국 중심의 IG 비중 확대 및 단기 국채 비중 유지가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증시의 변동성을 일부 헷지 가능하겠다. 차주에는 원자재 시장의 관망이 필요하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포지션의 일부 축소를 가능할 수 있는 주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대감을 자극하는 낙관론
그럼에도 신중한 확인 필요한 주간**

스페이스 X 상장 이후 변동성 주목

FOMC에서의 의견 분화 여부 및 미국 수출입물가와 제조업 관련 심리 지표를 확인하는 관망 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여부를 지켜본 후 빠른 대응이 필요한 주간으로 판단한다. 낙관론을 지우는 비관적 뉴스가 나올 시, 향후 반등을 기대하는 분할매수 접근은 필요하다. 스페이스 X 상장 이후 시장의 열기 이면에 놓여있는 기존 종목 및 산업의 변동성 테스트도 매우 중요하다. 즉, 새로운 호재에 대한 무비판적 시각보다는 기존 악재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다. 시장 주도권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에서 점차 유동성 그리고 금리와 직결되는 연준 통화정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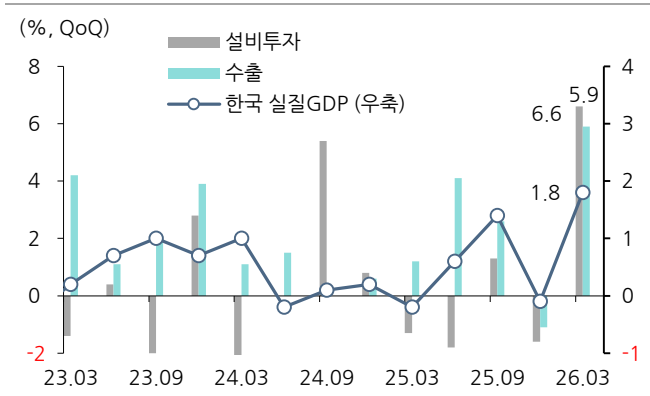
그림 1. 자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부동산원,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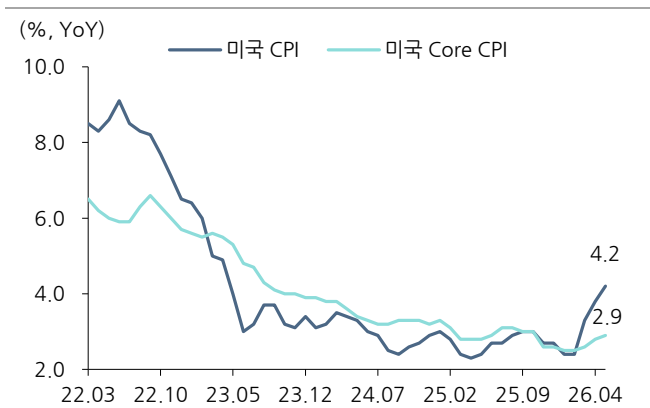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1Q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GDP(잠정)는 전기대비 1.8%, 전년동기대비 3.8%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QoQ 1.7%, YoY 3.6%)를 모두 상회
- 반도체 등 IT품목 중심의 수출(+5.9%)과 설비투자(+6.6%)가 성장을 주도한 반면, 정부소비(-0.4%)와 재고증감(-0.3%p)은 마이너스로 전환
-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GDI가 전기 대비 8.7% 급증. 향후 기업과 가계의 소비 및 투자 여력이 늘어나며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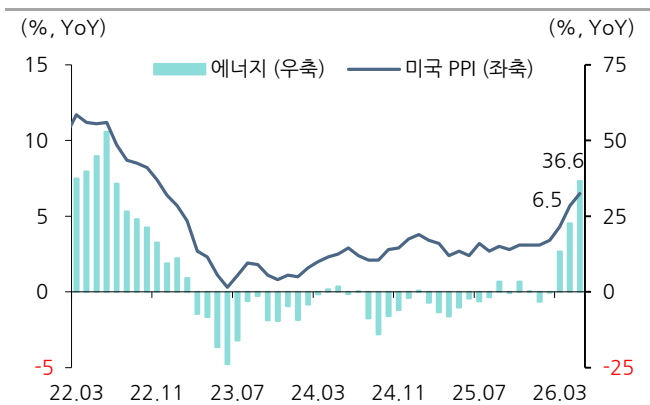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5월 CPI는 MoM +0.5%, YoY +4.2%로 모두 예상치 부합. 근원 CPI도 YoY 2.9%로 예상치 부합했으나 MoM은 0.2%로 예상치(0.3%) 하회
- 에너지 부문 MoM +3.9% 상승하며 월간 상승분의 60% 이상을 기여. 휘발유 가격은 MoM +7.0%, YoY +40.5%로 급등. 주거비와 식품도 전월대비 +0.3%, +0.2%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 가중
- 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CPI가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인 4%대를 재돌파하며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고조됨. 이제는 금리 인하 시점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주목할 것

그림 3.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5월 PPI는 MoM +1.1%, YoY +6.5%로 예상치(MoM +0.7%, YoY +6.4%)를 모두 상회. 2022년 11월(+7.4%)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에너지 가격(MoM +10.7%)이 전체 상승분의 약 80%를 견인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23.4% 급등. 근원 PPI도 MoM +0.8%, YoY +5.1%로 가격 압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 중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생산 원가를 직접 압박하며 유가 충격이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확산되는 흐름. 이에 연준의 고금리 기조 유지가 불가피해졌으며 긴축 경계감이 재차 고조될 전망

1. 경제

美 5월 CPI 리뷰 및 향후 물가 전망

미국 5월 CPI YoY 4.2% 상승.
예상치 부합

6/10 발표된 미국 5월 Headline CPI는 전년대비 4.2% 상승을 기록, 전월(3.8%)에서 큰 폭 상승하며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시장 예상치(4.2%)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반면 Core CPI는 전년비 2.9%로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전월비로는 +0.2%에 그치며 예상치(+0.3%)를 하회하였다. 헤드라인 물가 급등은 여전히 에너지폭 충격이 이어진 결과로 판단되며, 근원 물가 상승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한 이벤트였다. 다만 4%대 물가 수준을 반영하며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유지되었다.

여전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둔화된
운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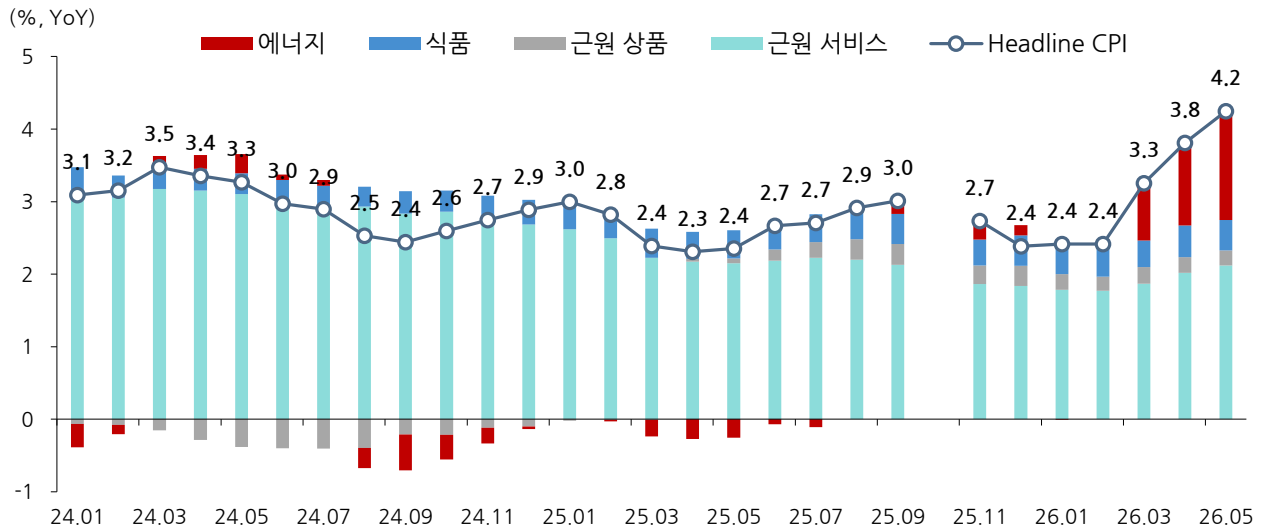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헤드라인을 끌어올린 주범인 에너지가 전월비 3.9% 급등하며 3월(+10.9%), 4월(+3.8%)에 이어 3개월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천연가스 가격 안정으로 에너지 서비스 물가는 전월에 비해 안정(+0.4%)되었으나, 휘발유가 전월비 7% 급등하는 등 중동 전쟁 발발 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직접 반영되었다. 반면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우려와 달리 식품은 전월비 0.2% 상승에 그치면서 헤드라인 물가 상승을 제한하였다.

시장의 주목을 받은 근원 물가 측면에서는, CPI의 약 36%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전월비 0.3% 상승에 그치면서 근원 서비스 물가 안정을 주도하였다. 더불어 운송서비스 물가의 하락(-0.6%)이 주요했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하락이 견인하였다.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 빈도와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총 차량 주행 거리와 비례한다. 차량 주행거리 발표는 2개월 가량 지연되어 최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으나,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라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유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차량 이동량이 감소하고, 이에 사고 발생 빈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시장이 경계했던 에너지 → 근원물가 전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에너지를 제외한 기초적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4%대 전후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는 하반기

향후 물가의 방향은 여전히 유가에 달려 있다. 당사는 하반기 평균 유가(WTI)가 90달러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가정하면 연말까지도 3%대 후반 CPI 상승률이 예상된다. 해당 전망치는 서비스 물가로의 전이를 배제한 보수적 추정이며 사실상 4%대 이상 물가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헤드라인 4%대 물가가 고착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근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6월 FOMC에서 완화적 메시지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림 1. 미국 Headline CPI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1. 미국 5월 CPI 품목별 가격 변화율

항목	구성비	5월 YoY (% NSA)	4월 MoM (% SA)	5월 MoM (% SA)	4월 대비 5월(%p)
전체	100.0	4.2	0.6	0.5	-0.1
식품	13.5	3.1	0.5	0.2	-0.3
가정식품	8.2	2.7	0.7	0.1	-0.6
외식	5.3	3.5	0.2	0.3	0.1
에너지	7.5	23.5	3.8	3.9	0.1
에너지 상품	4.2	40.6	5.6	6.7	1.1
에너지 서비스	3.2	5.3	1.6	0.4	-1.2
근원 CPI	79.0	2.9	0.4	0.2	-0.2
근원 상품	18.9	1.1	0.0	-0.1	-0.1
의류	2.5	4.8	0.6	0.3	-0.3
신차	3.8	0.2	-0.2	-0.3	-0.1
중고차	2.6	-2.0	0.0	0.1	0.1
의약품	1.4	-1.8	-0.4	-0.7	-0.3
주류	0.8	2.1	0.3	0.1	-0.2
담배	0.4	7.8	0.5	1.0	0.5
근원 서비스	60.2	3.4	0.5	0.3	-0.2
주거비	35.2	3.4	0.6	0.3	-0.3
의료서비스	6.8	3.6	0.0	0.5	0.5
교통서비스	6.4	4.1	0.3	-0.6	-0.9

자료: BLS,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2. 주식

KOSPI 대비 KOSDAQ의 주간 수익률 선방

이미 예견된 이슈 소화, 약해진 투심에 전쟁 민감도 재상승

국내 증시: 미국 증시를 지켜보는 불안한 투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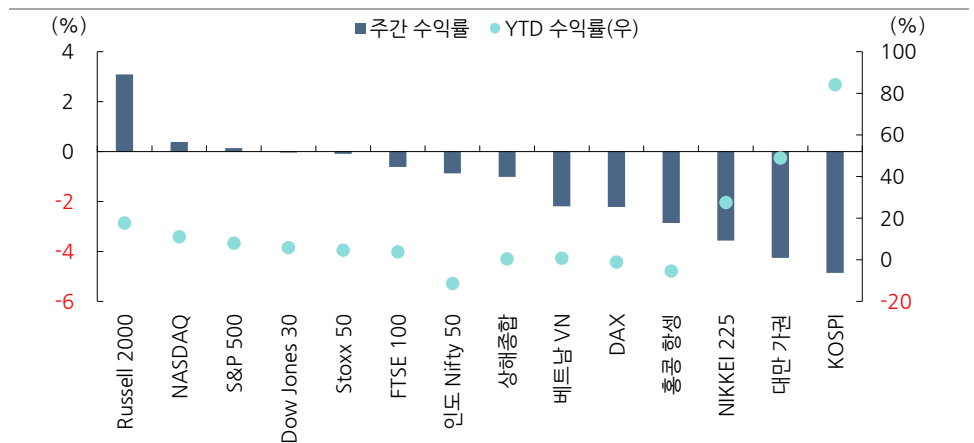
KOSPI는 전주대비 -4.86% 하락한 7,763.95pt를 기록하였다. KOSDAQ은 전주대비 -0.55% 하락한 996.93pt를 기록하였다. 금주 국내 증시는 전주 후반부터 이어진 반도체 차익실현 압박과 불안한 글로벌 투심을 반영하며 약세장을 시현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던 반도체 및 IT 전자 대형주들이 급락한 점은 KOSPI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주 KOSPI 지수는 6/8 -8.29% 블랙먼데이, 6/9 +8.18% 반등, 6/10 -4.52% 재하락, 6/11 +0.43% 급락 이후 강보합의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다만, 증가기준 수익률 증감 폭은 주 초반 대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 중반 이후 일중 추가 추이를 보았을 때, 단기적 차익실현 매물 소화 이후 매수-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상반된 심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주 주요 이슈 측면에서는 전주 브로드컴 실적궤 반도체 약세 흐름 속 미국-이란의 군사적 재충돌, 미국 CPI 발표, 오라클 실적발표 등 악재로 해석 될만한 내용이 많았다. 비록 중등 이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종전 기대감을 크게 반영했다가 급격하게 꺾인 측면은 있으나, 유가 상승과 중등 이슈 등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충격이었다는 점에서 차익실현의 재료로써 부각된 점이 없지 않다. 오라클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과 EPS에도 CAPEX 확대를 빌미로 급락한 점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결국 불안한 위험자산 투심이 야기한 국내 증시의 급락은 오히려 반도체 쏠림 완화-낙폭 과대주 반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이다. 이는 업종별 수익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5월 이후 반도체 강세장에서 약세를 보였던 유통업(+7.7%), 미디어/엔터(+3.4%), 필수소비재(+2.4%) 등이 전주대비 상승 마감한 반면, IT가전(-14.0), 자동차(-11.4%), IT S/W(-8.6%) 등은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대규모 차익실현의 과정에서 반도체 자금이 타 업종으로 이동한 한 주 였다.

그림 1. 증시별 주간/YTD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증시 차주 전망: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양상 지속

글로벌 통화정책회의의 맞이,
다만 종전 협상 진행과정이 중요

차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 전쟁 전개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글로벌 통화정책 슈퍼위크를 맞이하게 된다. 그 가운데 국내 증시는 보합~상승 사이의 장세 시현이 예상된다. 5월 KOSPI 급등 이후 6월 초 한차례의 차익실현 장세가 연출되었고, 오라클 실적발표 역시 소화한 가운데 다음 시선은 6월 FOMC 점도표 발표와 종전 협상 진행과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5월까지 전쟁에 대한 시장 투자자의 관심도는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나 금주에는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결국 약재에 민감한 분위기 속 군사적 충돌+호르무즈궤 유가 충격은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에 차주 역시 전황에 대한 관심도는 전월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시를 흔드는 반도체,
국내와 동조화 현상은 당연

특히 4월 말 이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흐름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증시 반등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지수의 머리 자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국 및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FOMC 주목도는 이전대비 높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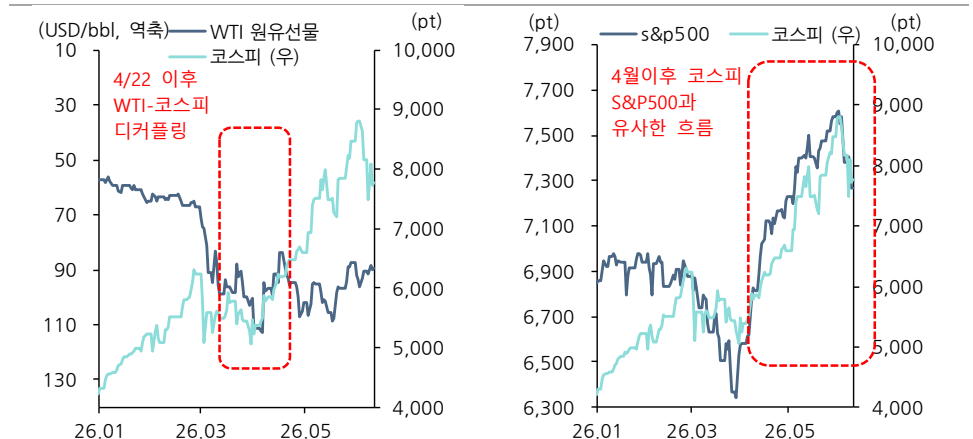
금번 미 연준 FOMC에서는 케빈 워시 신임의장 주재의 첫 회의이고,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점도표가 공개되기에 금리 인상-인하-동결의 베팅이 모두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주목도는 이전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영향력 하 연준 이슈 소화 이후 강세장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비 IT/낙폭 과대주 저가매수세
지켜볼 필요

이와 별개로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왔던 개인자금 유입(단일 종목+ETF 등)은 여전히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다. 다소 진정되었던 미수금 잔고의 증가와 스페이스X 상장 등은 업종-종목 단위에서의 급등락세와 함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와 유사하게 비 IT/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저가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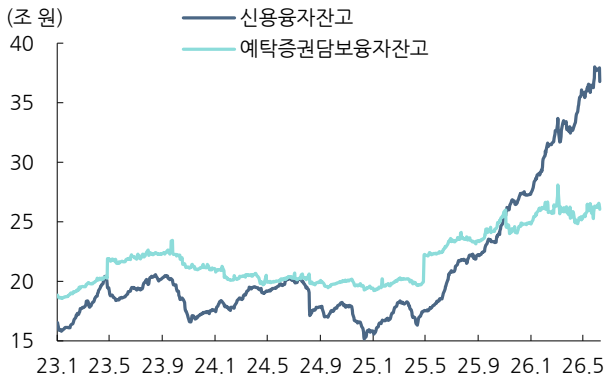
차주에는 BOJ 금융정책위원회(15~16), 미 연준 FOMC(6/18, 한국시간 점도표 공개), BOE 통화정책회의(6/18)가 예정되어있다, 경제지표 단에서는 한국 5월 수출입물가(6/16), 미국 소매판매 및 주택착공(6/17)가 예정되어있다. 한편, 6/18에는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이 예정되어있는데, 단기적 증시 영향력 보다는 고환율 부담 가중에 의한 조금 더 깊숙한 영역에서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26.03 이후 S&P500, 코스피, WTI 원유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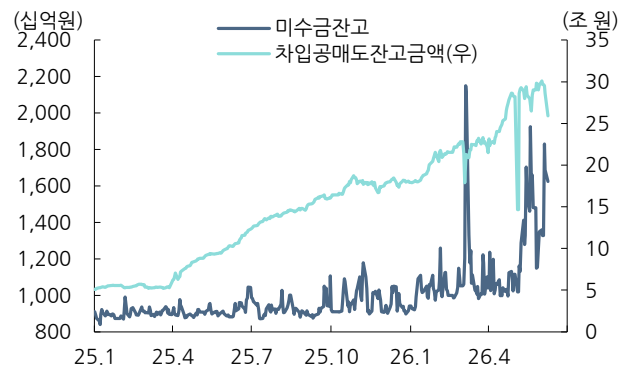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증시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증권담보용자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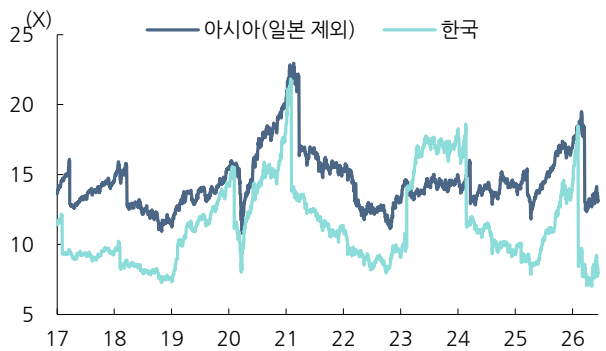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증시 미수금잔고 및 차입공매도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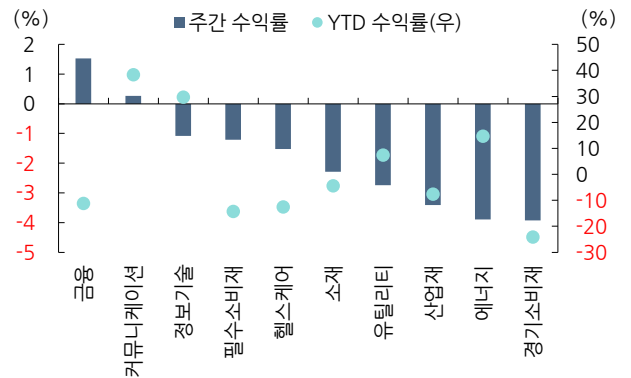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아시아(일본 제외), 한국의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지수는 보합에 머물렀으나 내부에서는 격렬한 로테이션이 진행

주간 미국 증시 Review: 소프트웨어에서 실물 병목으로, AI 프리미엄의 대이동

금주 미국 증시는 지수 차원에서는 숨을 고른 한 주였다. S&P 500은 주간 +0.1%, NASDAQ +0.4%, 다우존스 -0.0%로 사실상 보합에 머문 반면, Russell 2000은 +3.1% 급등하며 뚜렷한 차별화를 보였다. 직전 금요일 5월 고용 서프라이즈(+17.2만명, 예상 +8.5만명)가 촉발한 급락 이후 시장은 수요일 CPI 발표를 전후로 재차 흔들렸으나, 목요일 미국-이란 긴장 완화 소식에 +1.8% 반등하며 한 주를 마감했고 VIX는 -9.6% 하락한 19.4까지 내려왔다. 스타일별로는 소형주 +3.4%, 중형주 +2.1%가 대형주 +0.0%를 크게 앞섰고, 성장주(-0.1%)보다 가치주(+0.3%)가 우위를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지수가 멈춘 한 주였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시장을 끌어온 대형 성장주 내부에서 격렬한 자금 재배치가 진행된 한 주였다. 당사는 소형주의 상대 강세를 일회성 금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성장이 소수 대형주 밖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주목한다. 중소형주는 내수 노출과 산업재 비중이 높아 미국 산업 경기 회복의 직접 수혜 영역인 데다, 대형주 대비 상대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어 재평가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

반도체/IT 관련으로 보면 인텔은 구글이 2028년 가동분 TPU 300만 개 이상을 인텔 파운드리에 발주했다는 소식과 엔비디아의 백업 파운드리 채택 보도,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의견 상향 이벤트까지 겹치며 주간 +17.9% 급등해 26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마이크로론은 2026년 HBM 캐파 완판과 6월 24일 실적 기대를 안고 +15.3% 상승했다. AMD(+4.7%)와 텍사스인스트루먼트(+4.2%) 등 반도체 전반이 강했고, 방산의 록히드마틴(+4.8%), SpaceX 상장을 앞둔 우주 테마의 로켓랩(+4.3%)도 동반 강세였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오라클 -13.8%, 어도비 -13.0%, 세일즈포스 -10.4%, 서비스나우 -8.3%, 마이크로소프트 -6.3%로 일제히 급락했고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23.2% 폭락했다. 화요일 Anthropic이 법률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툴을 공개한 것이 직접적인 트리거였으나, 본질은 AI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당사는 이번 주를 AI 수혜의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운드리-메모리 등 실물 병목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변곡점으로 판단한다.

업종별로는 주간 기준 필수소비재(XLP)가 +2.2%로 가장 강했고, IT(XLK) +1.6%, 경기소비재(XLY) +1.3%, 소재(XLB) +1.2%, 헬스케어(XLV) +0.7%가 뒤를 이었다. 약세는 에너지(XLE) -1.0%와 유틸리티(XLU) -0.7%에 그쳤다. 표면적으로는 필수소비재 1위라는 점에서 방어적 장세로 읽히지만 실상은 다르다. IT(XLK)의 +1.6%는 반도체 급등이 소프트웨어 급락을 상쇄하고 남은 결과로, 이번 주는 업종 간 분화보다 업종 내부의 분화가 훨씬 컸던 한 주였다. 필수소비재 강세 역시 경기 침체 베타이라기보다 소프트웨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단기 대피처를 찾은 결과에 가깝고, 에너지 약세는 목요일 이란 데탕트에 따른 WTI -5.1% 급락을 그대로 반영했다. 결국 자금은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같은 시장 안에서 AI 밸류체인 승자 후보를 다시 고르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4%대를 지속, 이란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으로 물가 상승 경로 완화

매크로 지표의 함의: 전쟁만 없으면 모든 것이 골디락스

매크로만 보면 시장이 버틴 것 자체가 역설적이다. 5월 CPI는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4.2%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고, 에너지 물가는 전년 대비 +23.5% 급등하며 헤드라인을 끌어올렸다. 직전 금요일 고용은 +17.2만 명으로 예상을 두 배 이상 상회했고, 선물시장은 연준의 다음 행보로 12월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물가가 4%대인데 고용까지 강한 조합은 통상 멀티플에 부담이지만, 시장은 이를 전면적 위험회피로 연결하지 않았다. 코어 CPI가 +2.9%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물가 압력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발이라는 점, 그리고 목요일 이란 긴장 완화로 유가가 급락하며 바로 그 에너지 경로에 출구가 열렸다는 점 때문이다. 당사는 이번 에너지발 물가 충격을 밸류에이션 충격이 아닌 가격 충격으로 분류한다. 공급발 충격은 물가와 자산가격의 수준을 바꾸지만 추세까지 바꾸지는 못하며, 돌을 가르는 임계점은 충격의 지속 기간이다. 충격이 장기화되어 수요 파괴와 마진 압박,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로 전이될 때 비로소 멀티플 압축이라는 구조적 조정이 시작되는데, 현재 고용과 소비는 견조하고 크레딧 시장도 안정적이어서 그 신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제마진이 확대되어 있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료 물가는 유가 하락분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잔존 부담이다. 결국 금주 시장의 메시지는 물가의 수준이 아니라 물가의 경로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당사는 이번 조정을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 가격의 일시적 탈구로 판단한다.

수급 측면에서도 주체별 엇갈림이 뚜렷하다. ICI 집계 기준 직전 금요일 급락이 포함된 6월 3일 주간에 주식형 펀드에서 약 374억 달러가 순유출되었으나(미국 주식형 -271억 달러), 가장 최근 주간에는 +67억 달러 순유입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미국 국내 주식형으로 +96억 달러가 복귀했다. 구조를 뜯어보면 같은 기간 뮤추얼펀드에서 229억 달러가 환매되는 동안 ETF로는 613억 달러가 유입되어, 변동성 국면에서 전통 액티브 펀드의 이탈과 ETF를 통한 재진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체별 포지션은 정반대다. 개인투자자는 연초 소프트웨어 조정 국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급락에서도 공격적인 저가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헤지펀드는 소프트웨어 숏 포지션을 빠르게 확대하며 반대편에 섰다. 개인과 기관의 이러한 대치는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지만, 당사는 차주 약 750억 달러를 흡수하는 SpaceX 상장이라는 대형 수급 이벤트를 전후로 어느 한쪽의 포지션 정리가 확인되는 시점이 시장 방향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변화는 변동성 환경 자체의 개선이다. 최근의 극단적 일중 변동은 매크로 뉴스 그 자체보다 옵션 시장의 포화가 이를 증폭한 결과에 가깝다. 단기 만기 옵션으로 거리가 집중되면서 달러들의 헤지 물량이 지수 움직임을 같은 방향으로 키웠고, 레버리지를 동반한 솔림 포지션은 작은 충격에도 연쇄 청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주를 지나며 이 구조가 풀리는 조짐이 뚜렷하다. 미국-이란 긴장 완화로 VIX는 20선 아래로 내려왔고, 유가 급락은 에너지발 리스크에 대한 헤지 수요를 줄였다. 당사는 현재 국면을 지정학 리스크 완화와 함께 옵션 포지셔닝의 포화, 그에 따른 극단적 변동성이 점차 해소되는 디레버리징 국면으로 판단하며, 이 과정이 마무리될수록 시장의 무게중심은 다시 개별 기업의 이익 펀더멘털로 이동할 것으로 본다.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수급발 탈구로 낮아진 가격은 구조적 성장 노출을 다시 쌓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I 도입을 감당할 수 있고 이를 이익으로 연결시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이 유리한 종목 장세 심화

AI 디스럽션의 부메랑: 소프트웨어 해자의 침식, 제조 해자의 복원

이번 주 소프트웨어 급락을 단순한 차익실현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때도의 트리거가 실적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Anthropic의 법률 자동화 툴 공개가 촉발한 것은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때 사용자 수 기반 과금 모델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심이다. 오라클, 어도비,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의 두 자릿수 급락은 분기 실적 미스가 아니라 멀티플 프레임의 변화, 즉 시장이 소프트웨어에 적용해온 높은 마진이 영구히 성장한다는 가정에 할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직전 호에서 다룬 마이크로 리레이팅과 정확히 동전의 양면이다. 같은 AI가 한쪽에서는 멀티플을 깎고, 다른 쪽에서는 멀티플을 올리고 있다.

결국 향후 장세는 지수가 아니라 종목이 말하는 장세, 즉 종목 장세의 심화로 요약된다. AI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경계는 더 이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빅테크와 일반 기업이라는 업종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번 주에도 반도체 안에서 인텔과 마이크로이 급등하는 동안 엔비디아는 쉬어갔고, 소프트웨어가 일제히 밀리는 와중에도 데이터 락인이 강한 기업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당사가 보는 선별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AI 도입의 강도가 높으면서 그 투자 부담을 자체 현금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다. 둘째, 도입한 AI를 비용 절감이든 단가 인상이든 실제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기업이다. 셋째, 그 성과가 수년 뒤가 아니라 단기간에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이다. 이 세 조건은 하드웨어 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빅테크, 나아가 유통, 금융, 산업재 같은 일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 격차는 업종 간이 아니라 업종 내부에서 벌어질 것이다. 시장 전체의 방향을 묻는 질문보다 어떤 기업이 AI를 이익으로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신임 의장의 기자회견 톤이 소형주 반등의 키

차주 시장 이벤트: SpaceX 상장, G7 정상회의, 6월 FOMC

6/12(금): SpaceX 나스닥 상장

현지시각 6월 12일 SpaceX(티커 SPCX)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차주는 상장 후 첫 한 주의 가격 발견이 진행된다. 공모가는 주당 \$135로 확정되어 약 \$750억을 조달하며, 시가총액 약 \$1.8조의 역대 최대 IPO다. 공모 물량의 약 30%가 리테일에 배정되어 통상의 세 배에 달하고, 수요는 모집액의 3.5~4배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흡수가 기존 대형 성장주 수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번 주 소프트웨어 매도의 일부는 청약 자금 확보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상장 첫 주의 가격 흐름이다. 첫 주의 성패는 IPO 시장 전반과 위험선호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며, 로켓랩 등 우주발사체 밸류체인 동반 재평가 지속 여부도 함께 확인할 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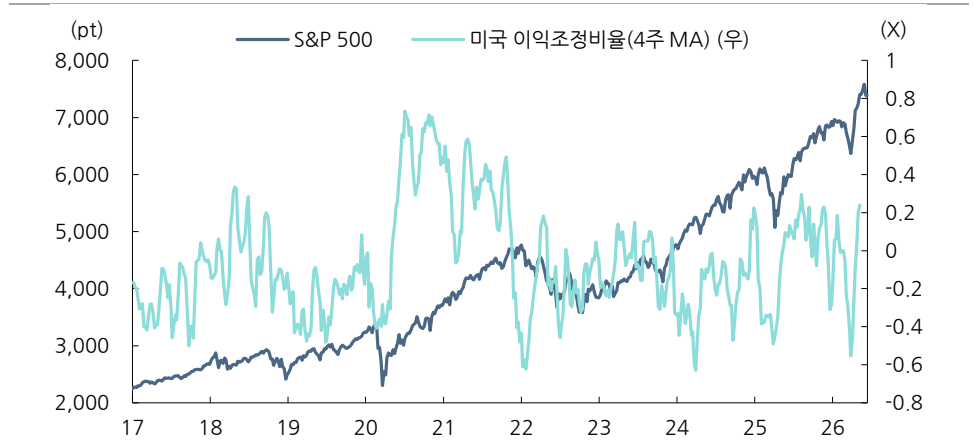
6/15(월)~17(수): G7 정상회의 (프랑스 에비앙)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글로벌 매크로 불균형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시장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란 긴장 완화 직후에 열린다는 시점이다. 정상 코뮤니케에서 에너지 안보와 중동 데탕트에 대한 공동 메시지가 확인된다면 이번 주 유가 하락(-5.1%)의 지속성이 강화되고, 이는 4%대 헤드라인 물가의 핵심 경로인 에너지 물가 안정으로 직결된다. 반대로 관세와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이견이 부각될 경우 공급망 물가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 수 있어, 회의 전후 유가와 달러의 반응을 함께 봐야 한다.

6/16(화)~17(수): 6월 FO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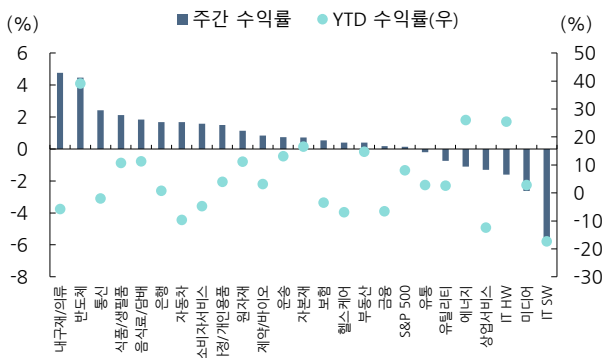
차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Kevin Warsh 신임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6월 FOMC다. 선물시장의 동결(3.50~3.75%) 확률이 98%에 달해 금리 결정 자체는 변수가 아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4월 회의에서 8 대 4로 분열되었던 위원회가 신임 의장 체제에서 어떤 균형을 보여주는지다. 둘째, CPI 4.2%와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점도표와 성명서가 시장의 12월 인상 가격화를 추인하는지 여부다. 셋째, Warsh 의장의 기자회견 톤이다. 매파적 일성이 확인되면 금리 민감도가 높은 소형주의 이번 주 반등(+3.1%)이 되돌려질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발 물가를 일시적 요인으로 규정한다면 시장은 이를 사실상의 완화 신호로 해석할 것이다.

그림 12. S&P 500 주가 추이 및 이익조정비율(4주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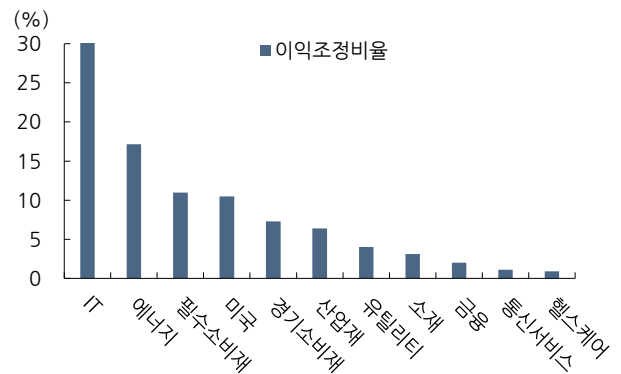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S&P 500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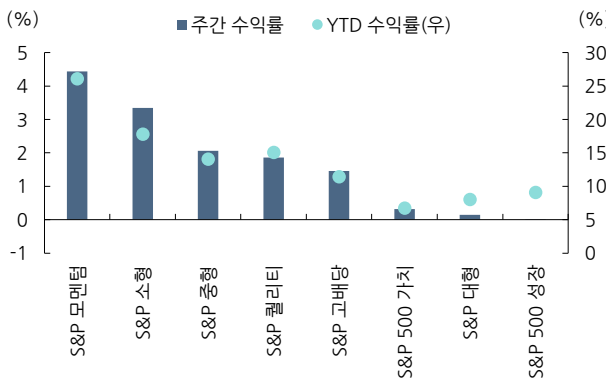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S&P 500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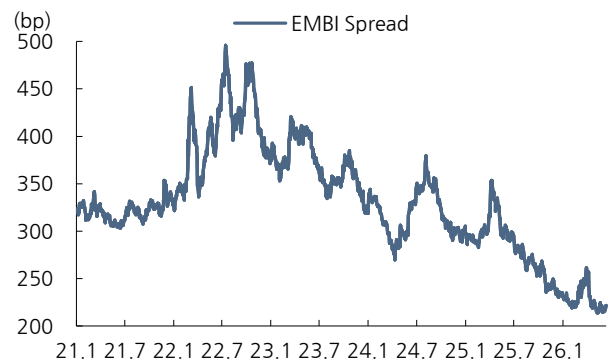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S&P 500 스타일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1. MSCI AC World 업종별 주요 지표

업종	업종별 EPS 변화율 (%)				컨센서스 추이 (%)	업종별 수익률 (%)				지수 추이 (%)
	1W	1M	3M	YTD		1W	1M	3M	YTD	
글로벌(M. AC World)	1.4	2.4	9.6	18.8		-2.8	-1.5	10.5	7.5	
에너지	-2.2	1.2	37.1	42.2		-2.3	-2.4	-4.2	25.2	
소재	0.7	1.5	7.9	24.4		-4.8	-7.0	4.9	5.7	
자본재	0.2	1.3	7.3	12.3		-3.1	-4.6	4.2	11.2	
상업/전문서비스	0.7	0.2	2.6	5.1		-0.7	4.7	1.3	-11.7	
운송	2.1	-0.7	0.0	3.1		0.3	2.5	8.1	7.9	
자동차/부품	2.0	1.2	-1.8	0.5		-5.3	-8.4	1.5	-13.2	
내구소비재/의류	1.8	0.3	0.8	1.6		0.8	4.8	7.0	-8.4	
소비자 서비스	3.2	0.9	-0.2	5.2		1.5	2.1	1.2	-9.5	
소매	2.7	0.9	3.6	8.8		-2.5	-5.3	7.5	-2.3	
식품/필수품 소매	-1.4	-1.0	-1.7	2.3		2.7	-3.7	-0.2	6.6	
식품/음료/담배	0.7	-0.1	0.9	3.2		2.9	-1.0	4.8	5.8	
가정용품/개인용품	2.9	0.5	-0.6	0.6		4.7	2.8	1.2	-2.2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1.4	-0.5	0.6	4.2		0.9	1.8	1.5	-9.4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1.1	1.0	0.4	1.1		0.8	3.2	4.0	-0.5	
은행	0.4	0.0	3.9	9.3		-0.4	2.5	8.7	3.2	
기타 금융	1.7	1.3	3.5	8.3		-0.8	-1.1	5.8	-7.8	
보험	0.6	0.3	2.6	6.3		2.5	0.8	5.2	-1.4	
소프트웨어/서비스	1.3	-0.4	2.4	6.2		-9.2	-0.2	2.6	-19.3	
기술 하드웨어/장비	3.0	4.3	30.0	61.6		-7.2	1.4	29.9	33.6	
반도체/장비	4.2	10.6	27.6	72.5		-4.3	-0.9	40.9	49.3	
통신서비스	2.1	1.3	2.6	7.6		-0.4	-1.5	-1.8	5.0	
미디어/엔터	0.5	2.3	9.5	11.4		-4.2	-8.3	5.3	-1.9	
유틸리티	0.8	-0.2	2.0	4.4		0.1	-2.6	-3.5	4.5	
부동산	0.6	-1.2	22.3	2.4		0.9	1.0	7.0	11.3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2. S&P500 업종별 주요 지표

업종	업종별 EPS 변화율 (%)				컨센서스 추이 (%)	업종별 수익률 (%)				지수 추이 (%)
	1W	1M	3M	YTD		1W	1M	3M	YTD	
미국(S&P500)	1.6	2.7	9.7	17.5		-2.5	-1.4	11.9	6.7	
에너지	0.1	3.8	46.8	48.7		-0.8	-0.3	-2.3	29.8	
소재	1.0	1.2	11.5	22.4		-4.0	-4.8	3.2	6.3	
자본재	1.6	1.5	5.6	9.8		-4.6	-4.7	3.0	10.3	
상업/전문서비스	0.8	0.9	2.0	4.1		0.5	5.2	-2.8	-12.2	
운송	3.8	3.5	3.1	6.3		-1.6	1.7	9.6	8.4	
자동차/부품	1.2	0.8	2.5	11.4		-8.5	-12.3	1.7	-19.3	
내구소비재/의류	1.2	1.4	0.1	3.3		-0.5	4.4	-5.2	-8.9	
소비자 서비스	1.3	1.1	2.3	5.8		-0.3	1.6	-1.4	-9.0	
소매	1.0	1.0	10.5	14.5		-3.7	-6.9	9.7	0.2	
식품/필수품 소매	1.0	1.4	2.5	5.1		2.6	-5.5	0.5	10.1	
식품/음료/담배	0.5	0.4	2.2	3.8		4.6	0.5	7.5	11.4	
가정용품/개인용품	0.3	0.2	-1.0	0.6		5.9	4.2	2.9	3.4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0.9	0.9	3.6	6.3		1.3	2.3	3.1	-7.4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1.7	1.9	1.6	1.5		0.1	5.2	5.0	1.0	
은행	0.9	1.0	4.8	9.7		0.2	6.4	11.5	-3.2	
기타 금융	1.0	1.0	3.4	6.6		-0.9	-0.8	5.2	-8.7	
보험	0.4	0.5	2.0	4.6		3.8	3.5	4.3	-4.1	
소프트웨어/서비스	1.2	1.5	5.2	9.8		-8.0	0.4	4.4	-17.6	
기술 하드웨어/장비	3.1	3.7	15.0	27.9		-7.5	-0.5	24.3	21.1	
반도체/장비	4.0	9.2	20.6	56.1		-9.0	-8.8	30.5	30.3	
통신서비스	0.8	0.7	1.7	12.7		3.5	-2.9	-11.6	-0.6	
미디어/엔터	0.4	0.5	13.0	13.0		-4.8	-9.5	7.2	1.8	
유틸리티	0.8	0.8	2.6	5.1		0.0	-2.4	-5.4	2.1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3. 채권

국내 채권시장은 긴축 경계감과 중동 리스크 재고조에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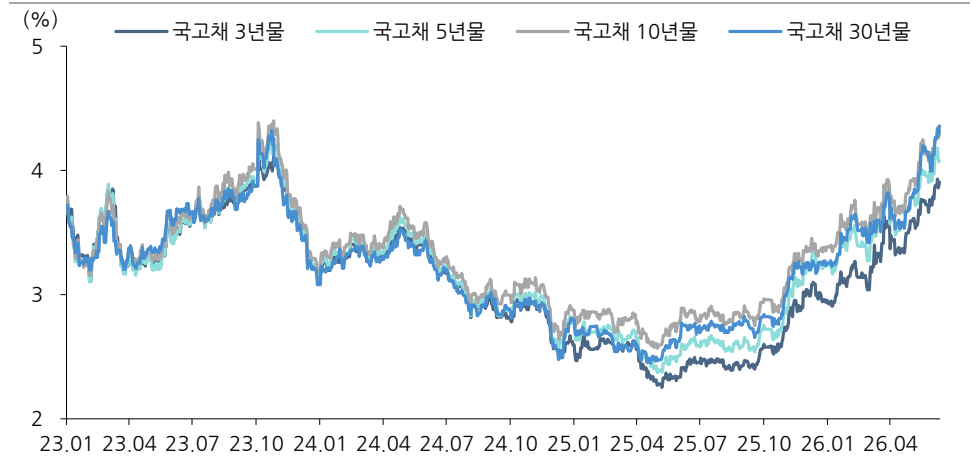
긴축 경계감 속 국내외 커브 스티프닝 전개

금주 국내 채권시장은 미 고용 호조발 긴축 경계와 중동 리스크 재고조가 맞물리며 약세장을 시현했다. 주 초반 미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 여파로 연준-한은 동반 긴축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초과 세수 관련 발언이 국채 공급 확대 우려를 자극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이후 환율 급락과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에 금리는 큰 폭 하락 반전했다. 다만, 주 후반 미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와 미국의 연속 공습으로 중동 리스크가 재고조되며 낙폭을 일부 반납했다. 주간 수익률 곡선은 초장기물 위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전주대비 베어-스티프닝을 시현했다.

미국 채권시장은 물가지표 소화, 마이란 협상 타결 시사에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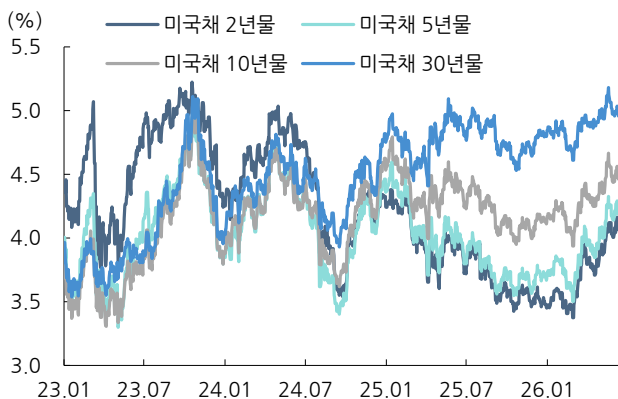
금주 미국 채권시장은 긴축 경계감 속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되며 주 후반 미-이란 협상 타결 시사에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초반 5월 비농업 고용 호조 여파가 이어진 가운데, 이스라엘-이란 교전 재개와 이란 공격 위협이 반복되며 금리 변동성을 증폭시켰고, 5월 CPI의 4%대 재돌파와 PPI 상회와 맞물리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했다.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 취소 및 협상 타결 시사 발표에 유가가 급락하며 전 구간 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 주간 수익률 곡선은 전주대비 볼-스티프닝을 시현했다.

그림 1. 주요 만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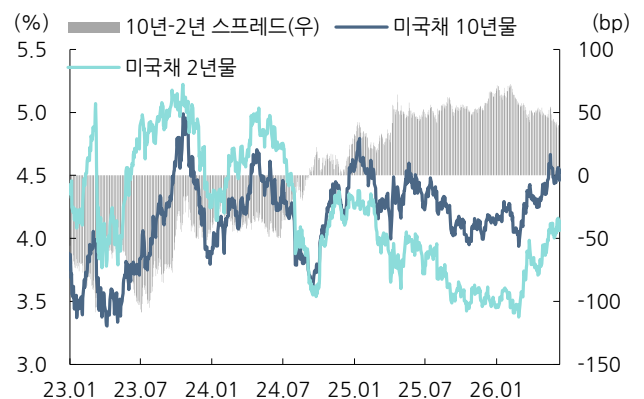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 국채 주요 만기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 국채 장단기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4. 부동산

전셋값 급등, 매매시장도 가격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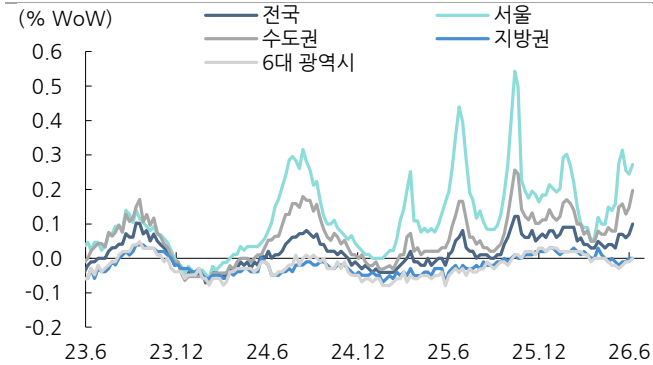
신규 공급 부족 속 매매시장 가격 상승, 전세난 심화

6월 둘째주 부동산시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매매시장으로 전이되는 흐름이 핵심이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고, 서울은 매매 0.27%, 전세 0.3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전세는 월세화, 입주물량 부족, 실거주 수요 누적으로 10년여 만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것이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실수요 매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매매시장에서는 서울 강북·서남권으로 상승세가 확산됐고, 경기 남부에서는 반도체 수혜 기대가 반영된 동탄 아파트값이 한 주간 1.98% 급등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금리·대출 규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세 불안,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수도권 중심의 매매·전세 동반 강세가 이어진 한 주였다.

전주대비 가격 상승 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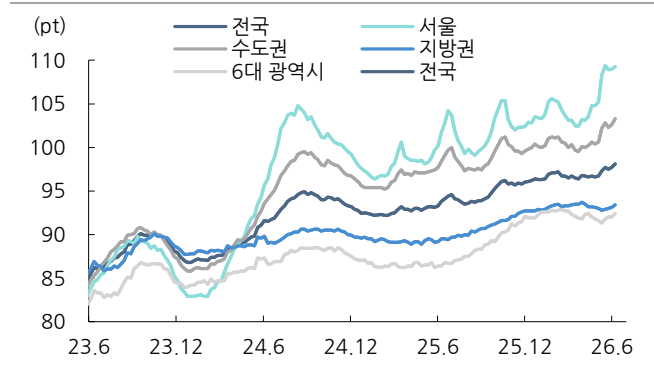
매매시장의 상승 지역은 107개를 기록하며 전주 100개 지역 수 대비 증가했다. 세종시의 등락률은 -0.21%로 전주 -0.02% 대비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강북(+0.27%)의 경우 동대문구(+0.39%), 도봉구(+0.39%), 성북구(+0.35%) 등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강남(+0.27%) 역시 강서구(+0.42%), 구로구(+0.40%), 송파구(+0.33%) 등 서남권 및 강동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인천(+0.04%)의 경우 연수구(+0.11%), 미추홀구(+0.08%), 동구(+0.05%)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경기권에서는 동탄구(+1.98%), 분당구(+0.62%), 중원구(+0.48%), 동안구(+0.40%) 등 화성·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림 1.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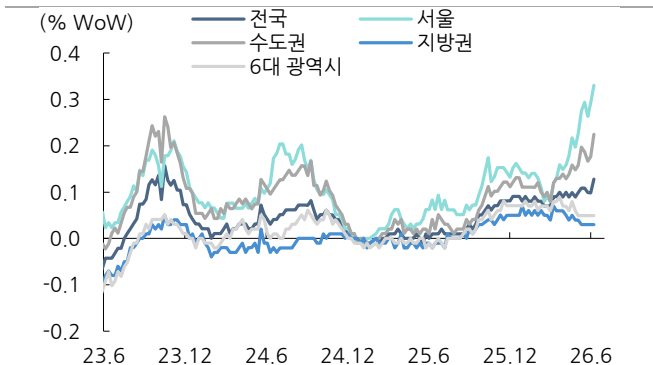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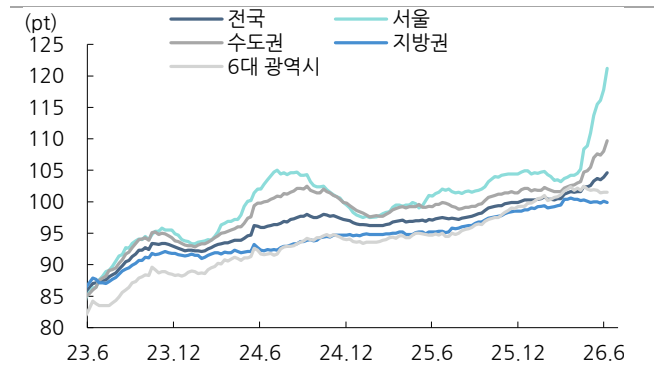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등락률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추이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열, 김경태, 최예찬, 강혜성)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개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상상인증권
sangsangin securities

